



신안군은 지난 17일 경기도 평택시의 자매결연 1주년을 맞아 국도 최서남단 가거도를 '평택시의 섬'으로 선포, 표지석 제막식을 했다. 앞서 14일에는 하의도를 '김해시의 섬'으로 선포했다. (오른쪽)



(신안군 제공)

‘김해시의 섬’ 하의도·‘평택시의 섬’ 가거도·‘하남시의 섬’ 도초도...

섬 없는 지자체, 신안 섬 분양받는다

‘특별한 섬’ 프로젝트 추진
관광마케팅 효과 등 기대

‘김해시의 섬’ 하의도, ‘평택시의 섬’ 가거도, ‘하남시의 섬’ 도초도...

국내 유일의 섬으로만 구성된 지자체인 신안군이 섬이 없는 육지 지자체에 섬을 하나씩 분양한다.

19일 신안군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4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신안군이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 중 섬이 없는 도시에 신안의 섬들을 나눠(?) 주고 있다.

김해시의 섬, 평택시의 섬 등 섬 하나를 해당 자치단체의 섬으로 선포하는 ‘특별한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섬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명예행정구역의 섬이 생기고, 신안군은 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결연 지자체 도시민들의 애정어린 섬 방문으로 이어져 관광마케팅 효과도 점쳐진다.

신안군은 지난 17일 대한민국 최서남단 가거도에

서 ‘평택의 섬’ 선포 1주년 표지석 제막식을 했다.

평택시의 유명한 ‘슈퍼오일 쌀’의 쌀눈 모양을 본떠 상징조형물을 제작, 여객선을 타고 내리는 관문에 설치해 자매도시 평택시를 알리는 데 독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과 평택시는 지난해 11월 5일 행정·관광·문화·예술·교육·체육 등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자매결연을 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시의 섬’으로 선포하고 상징물 제막행사를 했다.

신안군은 지난해 9월 김해시와 더불어 잘 사는 영·호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신안군은 하의도·가거도에 이어, 도초도를 ‘하남시의 섬’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선포식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섬을 방문하면 교통비, 숙박비, 식대를 지원하는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섬이 없는 자매도시에 아름다운 섬을 공유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

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특별한 섬’ 프로젝트 등 자매도시간 섬 문화 및 우수시책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바다위 정원 1004섬 신안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 고금도 충무공 테마공원으로

275억 투입 묘당도 등에 전시관·공원 조성...유적순례 코스도 개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이 깃든 완도 고금도가 역사관광 테마공원으로 거듭난다. 완도군은 이 충무공 유적이 곳곳에 깃들여 있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고금면 일대를 총 사업비 275억원을 들여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완도군은 고금면 충무리 묘당도 일원에 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 충무공 이순신 전시관 건립, 이순신 생태공원 조성, 관양묘 재건 등 충무공 기념공원을 조성한다.

묘당도 일원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수군 본영이 설치됐던 역사적인 곳이다. 완도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묘당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순신 유적 순례 코스 및 관광자원을 개발해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고금면 덕동리와 운동리 일원에는 19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이 이끄는 조맹 연합수군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역사적인 현장을 관광과 접목한 교육·체험공간으로 조성한다. 삼도수군통제영·봉수대·활터를 재현하는 역



완도군이 충무공 얼이 깃든 고금면 일대에 사업비 275억원을 들여 역사공간으로 조성한다. 고금 묘당도 충무사 전경. (완도군 제공)

사관광 자원화, 갯벌 생태 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어촌체험 자원화, 역사 둘레길·어울림·해안길 관광장을 조성하는 역사공원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장보고 청해진 유적지와 가리포진 등을 연계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이 역사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미소, 절임배추 오늘부터 예약 판매

20kg 4만원선... 10~20% 할인

“올 김장은 최상품 배추 출하되는 11월 중순부터 하세요.”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20일부터 청정해남 절임배추의 사전예약을 받는다.

올해 해남미소 절임배추 가격은 20kg 1박스(택배비 포함)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 4만3000원,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4만1000원, 일반은 4만원이다. 배추 원물 가격 상승과 인건비·부재료, 택배비 상승 등으로 지난해 대비 10%가량 인상됐다.

특히 해남미소를 통해 사전 예약 시 일반 판매 금액보다 10~2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소비자가 배송일을 지정해 원하는 날에 받을 수 있다.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올해는 배추 정식시기가 늦어져 최상품 배추로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11월 중순 이후로 김장 시기를 잡는 것이 좋다고 해남군은 권장했다.

해남배추를 원료로 한 절임배추는 지난해 지역 911농가에서 205만7908박스를 판매, 723여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해남미소에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한민국 쇼핑주간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절임배추와 함께 각종 김장재료도 할인된 가격에 판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미소 절임배추는 명품 배추로 인정받고 있는 해남배추를 원료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생산된 제품만을 판매해 소비자 신뢰도가 매우 높은 품목”이라며 “올해 배춧값 상승으로 김장 걱정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약을 통해 질 좋은 절임배추를 원하는 시기에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전라도, 여긴 안 가봤지?

‘영광 여행 인증샷’ 이벤트

한빛원전 11월말까지

서해안 관광명소인 영광을 여행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인증 사진을 올리면 기념품이 쏟아진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영광의 관광명소를 투어하고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 기념품을 주는 ‘전라도, 여긴 안 가봤지? 전남 서해안을 내 손에’ 포토 스탬프 투어를 11월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한빛원자력본부 주관하는 영광 투어 이벤트 장소는 ‘영광 노을전시관→백제 불교 최초도래지→숲재이 꽃동산→가마미 해수욕장→고창 청보리밭→한빛파크골프장→한빛원자력 홍보관’ 등 7곳이다. 참여자들은 방문 장소별로 정해진 포토존에서 인



증샷을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맘카페, 네이버밴드, 카카오톡스토리 등에 올리면 된다.

최종 목적지인 영광 흥농을 성산리 한빛원자력본부 홍보관 안내데스크에서 인증샷 확인을 거치면 기념품을 증정한다.

한빛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영 기자 jylee@kwangju.co.kr

2020 자전거이용 활성화

그린 자전거 축제

10월 25일(일) 영산강 일원

장소	영산강자전거안내센터(극락교)	참가비	전종목 무료
종목	자전거대행진	접수	062-376-3112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

- 자전거대행진 '사랑코스'** (비경쟁 퍼레이드 45km)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 서창교 → 승촌보 → 나주대교 → 빛가람대교 → 영산교 → 영산대교(유채광장/반환) → 영산교 → 빛가람대교 → 나주대교 → 승촌보 → 서창교 →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제한시간: 오전 12시 40분까지(3시간)
- 자전거대행진 '행복코스'** (비경쟁 퍼레이드 25km)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 서창교 → 승촌보(반환) → 서창교 →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제한시간: 오전 11시 10분까지(1시간 30분)
- 신청**: 사전 전화접수
- 참가자준비물**: 개인 안전장구, 자전거
- 자전거대행진 당일안내** (마스크 착용)
 - 참가자집결시간: 오전 9시까지(출발선 대기)
 - 장비점검(배변 등 부착물 체크): 오전 8시~9시
 - 출발시각: 오전 9시 40분

※ 신체 건강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기념품은 배번호를 부착한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주최측은 경기 중 발생한 부상, 사고 등에 대해 응급조치 및 보험 보상규정 한도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상태(개인 지병, 혈압, 당뇨, 과로, 심장질환 등)를 고려하여 참가신청 및 개별 상해보험 가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최 | **광주일보** ·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 | 주관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 | 후원 | **광주광역시**